

강진군, 전남 최초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로 한 걸음 더

강진군이 성평등가족부가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전남 최초 3회 연속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강진군은 지난 8월, 그동안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를 종합한 지정 신청서를 전라남도의 검토와 추천을 거쳐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 전반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강진군은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 다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며, 3번째 인증이라는 뜻 깊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 지정은 새롭게 개편된 심사 기준을 충족하며 지역의 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참여·돌봄·안전 중심의 여성친화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평등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여성뿐 아니라 아동·노인 등 모든 세대가 존중받는 포용적 공동체로 발전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지정은 강진군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여성과 아동, 어르신 등 사회적 약



강진군이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자의 권익이 존중되고, 군민 모두가 행복 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나주시, 남평 '설향' 딸기 본격 출하

당도·품질 모두 우수...남평 중심 딸기 산업 경쟁력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대표 겨울 과일인 '설향' 딸기의 본격 출하와 함께 2026년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 작목 육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을 이뤄내며 남평을 중심으로 한 나주 딸기 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달 28일 지역 대표 품종인 '설향' 딸기의 본격적인 출하 소식을 전했다.

나주 딸기의 핵심 주산지인 남평읍에서는 지난 11월 10일경 첫 수확이 이뤄졌으며 현재 출하가 이어지면서 당도와 품질이 예년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올해 고품질 딸기 재배기술 교육 8회를 추진해 환경관리, 양액·수분 조절, 병해충 대응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며 품질 향상 기반을 다졌다.

남평에서 출하된 첫 물량은 전량 완판됐으며 공판장 경매에서도 좋은 시세를 보이며 나주 설향 딸기에 대한 시장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최근 '2026년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에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내년부터 딸기 우량묘 자가 생산시설 확대, 육묘시설 고도화, 조기 화이분화 기술 시범, 육묘기술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본격 추진해 남평을 중심으로 한 나주 딸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기울인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남평은 나주 딸기 재배의 핵심 지역"이라며 "공모사업 선정과 기술지원 확대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딸기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제5기 수료식 성료

9개월 간 14세대 대상으로 실습 중심 프로그램 운영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달 30일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제5기 수료식'이 11월 27일 교육생과 가족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제5기 체류형지원센터 교육과정은 도시민들이 함평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11월 총 9개월간 14세대를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농촌 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 지식과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폭넓게 제공해 왔다.

또한 선도 농가 및 체험장 방문, 시설하

우스를 활용한 작물 식재·재배 실습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해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수료식에서는 9개월간의 활동을 담은 영상 시청과 농어촌공동체과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교육생들에게 수료증과 꽃다발이 전달됐다. 출석률이 우수한 교육생에게는 별도의 축하 선물도 수여됐다.

마지막으로 배움의 성과와 향후 귀농·귀촌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과 향토 수료식을 마무리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체류형지원센터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 준비에 든든한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제6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입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함평/전광춘 기자

카메라 뉴스



보성군 한국차자조회-대천시 빵모양당협동조합 MOU

보성군 (사)한국차자조회(대표 서상균)와 대천시 빵모양당협동조합(대표 김태호)이 11월 25일 대전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국산 차 소비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성 말차·녹차가 성심당 및 전곡 베이커리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했으며, 원료 중심 소비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제과·제빵 등 식품산업 전반에 차(茶) 활용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산 말차 사용 매장·업체 발굴 및 확대, ▲베이커리/카페 업계 대상 국산 차 홍보·공통 프로모션 전개, ▲기관 간 인적·산업적 네트워크 교류 및 협력 체계 강화 등이다.

보성/김은기 기자



영암읍지사협, 보일러 고장 가정에 탄소전기매트 전달

영암군 영암읍지사협(회장 김남두, 전의홍)이 최근 주거환경이 열악한 한 홀몸 어르신 가정을 찾아 탄소전기매트를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가정은 난방 보일러 고장으로 한겨울을 맞는 어르신의 불편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의홍 영암읍지사협 민간위원장은 "오늘 방문에 이어 취약가구의 겨울나기를 돕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읍지사협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복지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무안군, 2년 연속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기관 선정

무안군(군수 김산)이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걷기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은 성과로 군민 참여 중심의 걷기 문화가 정착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걷기 앱을 활용한 주민 참여 증가, 걷기동아리 회원 확대, 다양한 걷기 캠페인 운영 등으로 군민 체감형 걷기 문화 확산에 성공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산 군수는 "2년 연속 걷기 분야 우수기관 선정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 중심 행정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건강을 실천하는 워킹클 무안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